

고종의 시의 독일의사 분쉬(Richard Wunsch) (1869-1911)

박형우* 이태훈**

서론

분쉬(Richard Wunsch 富彦士)는 1901년 11월 2일 내한하여 1905년 5월 1일 떠나기까지 고종(高宗)의 시의(侍醫)로서 활동했던 독일인 의사이다¹⁾ 188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 서양의 학이 도입된 이후 조선인 의사가 배출되기 전까지 조선에서는 많은 외국인 의사들이 활동했는데 이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은 주로 미국과 캐나다의 의사들로서 기독교 전도를 목적으로 입국하여 선교 본부에서 보내주는 기금으로 각지에 병원을 짓고 이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료 활동을 전개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일본인 의사들로서 대

체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는 의도에 맞추어 대거 입국하였다 이들 두 집단이 현재 우리나라 의학의 큰 두 흐름 즉 미국-캐나다식(式)과 일본-독일식(式) 의학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독일인으로서 선교나 정치적 배경이 없이 조선에서 활동한 분쉬는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더구나 황제 고종의 시의로서 활동했으니 말이다

이 글에서는 독일과 한국의 관계 정립 우리나라의 서양 의학 도입 구한말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 분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배경 분쉬가 내한할 당시 우리나라의 위생 상태 그리고 조선에서의 분쉬의 활동들을 살펴보고록 하겠다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및 동은의학박물관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1) 분쉬에 관해서는 「리하르트 분쉬 지음 김종대 옮김 : 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쉬 학교재 서울 1999」와 「한독의학교류 백년사 1883-1983 한독의학회 1994」에 소개되어 있다 이 중 앞의 책은 분쉬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쓴 편지와 일기로서 그의 내한 활동을 소상히 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개인 기록이라는 자료의 성격상 개인적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그의 내한 배경 의미를 살펴보기는 다소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이런 점을 유의하여 시의 고빙 계약 내한 배경 한독 관계에 대해서는 분쉬의 일기 이외에도 『舊韓國外交文書-德案』 및 규장각 소장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새로이 발굴된 분쉬의 시의 고빙 계약서[御醫雇傭契約(獨文 原本) 및 翻譯(國漢文 混用) 1902년 5월 3일 奎23436]를 통해 그가 공식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내한 활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분쉬(한국 베링거인겔하임 제공)

1 분쉬의 내한배경

문헌상 독일이 조선에 처음 알려진 것은 1614년(광해군 6년) 간행된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峰類說)을 통해서였다. 이수광은 사신으로 명나라를 다녀온 후 그곳에서 전해들은 ‘독일인국(獨逸人國)은 백옥(白玉)으로 성(城)을 쌓은 나라이다.’²⁾라는 짧은 기록을 남김으로서 독일의 존재를 우리에게 처음 소개하였다. 이후 1868년 독일인 오페르트(Ernest

Oppert)의 남연군(南延君)묘 도굴사건이 조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적은 있었지만 19세기 중엽까지 독일과 조선 사이에 특별한 관계는 없었다.

1876년 개항 이전까지 수교의 가능성을 갖지 못하던 조선과 독일이 수교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1882년이였다. 이 시기 조선의 개화와 세력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수교를 원하는 구미제국 모두에게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조선에 종주권을 행사하고 있던 청 역시 러시아와 일본의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구미열강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조선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독일은 청나라 이홍장(李鴻章)을 통하여 조선에 국교 수립 의사를 전했고 고종이 이에 응함에 따라 1882년 6월 30일(음력 5월 15일) 전권대신 브란트(Max August Scipio von Brandt; 巴蘭德)³⁾와 조영하(趙寧夏) 사이에 조·독수호조약(朝·獨修好條約)이 체결되었다.⁴⁾ 이 조약은 치외법권과 관세 문제 때문에 비준되지 못하다가 1883년 11월 26일(음력 10월 27일) 수정된 조·독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됨으로서 완전한 수교가 이루어졌다.⁵⁾ 수교 후 1884년 8월 14일 켐브쉬(Zembsch; 曾額德)가 초대 주한 독일공사로 부임하였고 조약은 1884년 11월 18일 최종 비준되었다.

그런데 조선과 국교를 체결한 독일은 일본이나 러시아같이 조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는 않았다. 독일은 조선에 커다란 이권이 걸

2) 芝峰類說 諸國部 外國 「獨逸人國 白玉城 以白玉爲之」

3) 브란트는 이미 1870년 주일 독일 대리공사 시절 입국 교섭을 시도한 적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때는 대원군 집권기로서 통상 교섭은 단호히 거부되었고 브란트는 공포로 위협 자격만 가한 채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이태영 : 「한독수호통상조약의 성립」 『한독수교 100년사』 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32쪽 참조

4) 고종실록 권 19 고종 19년 5월 15일(1882년 6월 30일)

5) 고종실록 권 20 고종 20년 10월 27일(1883년 11월 26일)

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1894년 청일전쟁 이전까지는 러시아와 영국 일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킴으로서 소극적으로 자기 위치를 지키려하였다. 다만 청의 추천으로 뮐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llendorf 穆麟德)가 1882년 외교 및 통상담당 관리로 고빙되었고⁶⁾ 독일 상사인 세창양행(世昌洋行)이 1883년 들어와 활동하였을 뿐이었다.⁷⁾

그러나 분취가 내한하기 7년 전에 일어난 1894년 청일전쟁은 조선의 국내외 정세를 크게 변화시킴과 동시에 동아시아 조선에 대한 독일의 정책 역시 변화시켰으며 그 변화는 분취가 고종의 시의로 내한하게 되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우선 독일은 일본의 청일전쟁 승리로 동아시아의 외교적 균형 관계가 흔들리게 되자 종래의 불간섭 정책에서 적극적 개입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인해 일본 러시아 영국 사이의 새로운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 독일의 동아시아 기반이 상실될 위기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일 간섭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정책 전환을 반영하여 독일은 러시아 프랑스와 함께 1895년 일본이 점령지 요동반도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하는 ‘삼국간섭’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였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라는 구미열강의 압력을 동시에 받게된 일본은 이들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동아시아 세력 관계와 독일의 지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청일전쟁의 승리자인 일본도 구미열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일본의 영향력이 감소한 반면 러시아 독일을 위시한 열강의 지위가 크게 상승하게 된 것이었다.⁸⁾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는 조선 내 정치 상황도 크게 변화시켰다. 삼국간섭 이후 점차 열세에 몰리게 된 일본이 대립하던 민비를 살해한 소위 1895년의 을미사변이 일어난 것이었다. 일본과 대립하고 있던 조정 내의 친미 친러세력들은 이듬해인 1896년 고종을 러시아공사관으로 옮기는 아관파천을 단행하였고 친일 갑오정권을 대체하여 친러 친미정권이 수립되었다.⁹⁾

조선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변화는 독일의 지위를 크게 상승시켰다. 독일은 삼국간섭의 주역이자 조선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러시아의 외교적 맹우(盟友)로서 조선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 결과 세창양행이 1898년 4월 당현은광(堂峴銀鑛) 채굴권을 획득하였고 1899년에는 독일의 황태자 하인리히 親王(Heinrich)이 내한

- 6) 뮐렌도르프는 최초의 외국인 고문으로 조선 법제의 근대화 경제 정책 수립 외교 관계 체결(러시아 이탈리아)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으나 지나친 친러성향과 조선 관료들과의 마찰 때문에 1885년 중국으로 소환되었다. 최종고 : 「구한말의 한독관계」 『한독수교 100년사』 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104-111쪽 참조
- 7) 세창양행은 극동 지방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던 독일의 상사 마이어(H. C. E. Meyer)가 제물포에 상사를 설치함으로써 만들어졌다. 독일 함부르크의 거대 무역자본이었던 마이어 상사의 조선 지사이었던 세창양행은 조선에 각종 잡화류(예컨대 바늘)를 비롯하여 화약 병기류 심지어 화폐 주조기까지 수입하였고 조선 정부에 대한 차관 제공 금광 채굴권 획득 해운 업무 대리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세창양행의 규모는 조선에 들어와 있던 외국 회사들 중 가장 큰 것이었으며 독일의 가장 중요한 이권 사업을 담당하였다. 최종고 : 「구한말의 한독관계」 『한독수교 100년사』 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111-113쪽 참조
- 8) 김상수 : 「청일전쟁과 독일의 동아시아정책」 『한독수교 100년사』 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173-184쪽 참조
- 9) 한철호 : 친미개화파연구 국학자료원 1998 100-108쪽 참조



사진 2 서소문 앞에 있던 분쉬의 자택(「리하르트 분쉬 지음 김종대 옮김 : 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쉬 학교재 서울 1999 202페이지」에서 인용)

사진 3 자택 응접실에서의 분쉬 (한국 베링거인겔하임 제공)

사진 4 자택 서재에서의 분쉬 (한국 베링거인겔하임 제공)

사진 5 분쉬 및 그가 고용한 한국인 직원 (한국 베링거인겔하임 제공)

하는 등 독일의 대한(對韓) 활동은 크게 활발해졌다¹⁰⁾ 독일은 수많은 외국 중의 하나가 아닌 조선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영향력 있는 열강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분쉬와 같은 독일인이 조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한편 아관파천기(俄館播遷期) 조선정부의 외국인 고용 정책 변화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조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케 하는 여건을 만들고 있었다 아관파천 이후 고종은 일본

을 제외한 각 국의 인물을 다양하게 고문으로 고빙하려 하였다 영국인 재정고문 브라운(J McLeary Brown)이 고빙된 것이나 미국인 그레이트하우스(Clarence R Greathouse)가 법무고문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 모두 그런 경우이었다 이는 열강의 인물들을 정부 내 고루 배치함으로서 열강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외교적 노력이었다 조선에 진출한 주요 열강의 하나인 독일인 역시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었다¹¹⁾

10)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 41 1999 130-132쪽 참조

요컨대 1890년대 후반 조선의 국내외 정세 변화는 독일인의 활발한 내한 활동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이런 변화 속에서 1901년 분쉬가 고종의 시의로 내한하게 된 것이었다

2 분쉬의 내한활동

분쉬는 1869년 독일 쉐레스덴(Schlesien) 지방의 히르슈베르그(Hirschberg)에서 제지공장을 경영하던 공장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1894년 그라이프스발트(Greisdorf) 대학을 졸업하여 의사가 되었으며 모교 병원의 외과에서 얼마동안 일했다 그러다 베를린으로 옮겨 당시 저명한 외과 의사였던 피르호(Virchow) 교수 아래에서 수련의로 일하면서 수술 기법을 배운 뒤 영국 런던에 있는 독일 병원에서 한동안 일했다 이 무렵 분쉬는 그라이프스발트 대학의 스승이었던 외과의 헬페리히(Helferich) 교수의 추천과 도르트문트 대학 내과의 벨츠(Bälz) 교수의 주선으로 고종(高宗)의 시의로서 조선에 오게 되었다 한국에 오기로 마음먹은 분쉬는 1901년 함부르크에서 고종 황제의 독일 주재 명예 영사인 마이어(Eduard Meyer)와 계약을 체결하고 내한할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1901년 8월 7일 독일 주재 한국 공사를 만나고 민속박물관 자연사박물관에 들러 한국 생활

에 필요한 사전 지식을 얻었고 브레멘 등에서 각종 의료 기구와 약품을 구입하는 등 한국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였다 준비를 마친 분쉬는 1901년 9월 3일 브레멘을 출발하여 수에즈 운하 상해를 거쳐 약 2달 만인 1901년 11월 2일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아래에서는 한국에 도착한 분쉬가 1905년 5월 1일 떠날 때까지 4년 가까이 서울에 살면서 벌인 활동을 계약과정 시의 개업의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분쉬의 계약과정과 고빙계약서

분쉬의 편지에 의하면 분쉬가 최초로 맺은 계약은 1901년 함부르크에서 고종 황제의 독일 주재 명예 영사인 마이어와 맺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계약은 한국 정부와의 공식적인 계약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1902년의 공식 시의 고빙계약서를 체결 이전까지 분쉬는 이 계약에 근거하여 내한하고 활동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원문이 확인되지 않지만 분쉬의 회고에 의하면 계약 기간은 3년이고 쌍방 합의에 의해 갱신이 가능했던 것 같다 또 시의로서의 공적인 활동 외에 개인병원을 개업할 수 있다는 언질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¹²⁾

그런데 이렇게 독일에서 대리인과 고빙계약을 맺고 방한하였으나 정작 한국 정부와 공식

11) 분쉬가 고종이 자신을 형식적으로 대했다고 회상한 것이나 러일전쟁 이후 분쉬가 조선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모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분쉬의 내한은 조선 정부의 외교 정책 열강의 세력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었고 일본이 조선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분쉬의 조선 체류도 끝나게 되었던 것이다 리하르트 분쉬 지음 김종대 옮김 : 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쉬 학교재 1999 참조

12) 분쉬가 함부르크에서 맺은 계약의 내용과 성격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리하르트 분쉬 지음 김종대 옮김 : 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쉬 학교재 서울 1999」의 옮긴이 주에 의하면 계약서가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계약서의 소재지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놓고 있지 않다 다만 계약서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분쉬와 한국 정부 사이의 시의 고

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은 1902년(광무 6년) 5월 3일이 되서였다. 분쉬 본인이 내세울만한 것이 못된다고 표현하였듯이 시의로서의 분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은 소홀한 것이었다.¹³⁾ 분쉬의 고빙계약은 다소 뒤늦었지만 계약 형식과 내용에 관한 몇 가지 협의를 거쳐¹⁴⁾ 궁내부 대신 임시서리 윤정구(尹定求) 및 외부대신 서리 외부협판 최영하(崔榮夏)와 분쉬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체결되었다.¹⁵⁾

合同

大韓 外務大臣 宮內府大臣과 德國醫師 富彦士가 大皇帝陛下의 御醫로 該醫師 富彦士의 供職함을 위하야 訂立合同如左

“”

第一條 此合同期限은 自一千九百一十一年 十一月 一日로 起하야 三年으로 定하며 此合同期滿할 時에 大韓 政府에서나 或該員이 續聘을 不要하면 六個月을 前期하야 均宜聲明하되 若不然境遇에는 續聘함으로 認得할 事

第二條 該醫師 富彦士의 月俸은 第第一個年에는 日本 金貨或紙幣 六百元이요 第二個年에는 日本金貨或紙幣 六百五十元이요 第三個年에는 日本金貨或紙幣 七百元이니 此月俸은 自大韓海關으로 每月終前에 撥給할 事

第三條 宮內府大臣이 該醫師 富彦士의 所住 家屋을 備給하되 若家屋을 未給하는 境遇에는 自大韓海關으로 日本金貨或紙幣 五十元式을 該員의 게 按月撥給할 事

第四條 該醫師 富彦士가 自德國으로 到着 漢城하

병 계약서는 분쉬가 내한한지 한참이 지난 후인 1902년 5월에 체결되었다. 이 계약서는 독일 공사와 한국 외무대신 그리고 분쉬 본인 모두가 서명한 것이었다. 즉 이 계약서가 한국 정부와 분쉬가 맺은 공식 계약인 것이다. 그렇다면 분쉬가 내한할 때 맺은 계약은 일종의 가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공식 계약이었다면 번잡한 절차를 거쳐 공식 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분쉬는 이 가계약을 근거로 내한하였고, 한국 정부 역시 일단 그 계약 내용에 의해 분쉬의 활동을 보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하나 독일에서 맺은 계약과 내한한 뒤 맺은 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분쉬는 시의 이외에 개인자격으로 개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후술할 분쉬의 고빙 계약서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 오히려 시의 이외의 활동으로 인해 업무가 소홀하다면 즉시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만이 있다. 계약 내용에 대한 분쉬의 자의적 해석일 수도 있으나 독일에서의 계약서와 한국에서 맺은 계약서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리하르트 분쉬 지음, 김종대 옮김 : 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쉬 학교재 1999 15-16쪽 참조

- 13) 분쉬는 편지 곳곳에서 궁중생활의 무료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반대로 황제를 진료했다는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1902년 3월 26일의 기록에 의하면 황제가 비로소 관심을 조금 가지기 시작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한국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분쉬의 정식계약은 신속히 체결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리하르트 분쉬 지음, 김종대 옮김 : 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쉬 학교재 1999 61쪽 참조
- 14) 분쉬의 고용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독일 공사관은 계약서 형식, 계약 주체 등을 두고 몇 차례의 공문을 교환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계약은 독일 공사, 한국 외무대신, 분쉬 모두가 서명하고 한국어, 독일어 계약서 각 2부를 작성, 각각 1부씩을 한국과 독일 양쪽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남아 있어 참고된다. 獨人 醫師 招聘 契約書의 捺印件 1902년 5월 8일 『德案』 규장각 18044[『舊韓國外交文書(德案 2)』 16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6 371쪽 문서번호 2668] ; 獨人 醫師 富彦士의 雇聘 契約書의 送呈事(獨文 및 漢譯) 1902년 5월 16일 『德 原案』 규장각 18045[『舊韓國外交文書(德案 2)』 16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6 374-375쪽 문서번호 2676] ; 招聘 獨人 醫師의 契約調印件 1902년 5월 24일 『德案』 규장각 18044[『舊韓國外交文書(德案 2)』 16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6 377-378쪽 문서번호 2682] ; 同上回答(獨文 및 漢譯) 1902년 5월 24일 『德 原案』 규장각 18045[『舊韓國外交文書(德案 2)』 16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6 378-379쪽 문서번호 2683]
- 15) 御醫雇聘契約 규장각 23436

는 旅費는 經大韓宮內大臣하야 由大韓海關으로
日本金貨或紙幣 一千二百元 領受할 事
第五條 該醫師 富彦士가 맞당히 自己의 商議는
時間 以內에는 宮內 各 官員 등과 大韓 政府에
關한 各 外國人 等の 病도 診察 干涉할 事
第六條 大韓 宮內府大臣이 該醫師 富彦士의 御醫
供職함을 爲하야 所需 藥料와 外科 機械와 器
皿 等 物을 購買함이 必要한 費額을 辦給하며
該醫師 富彦士가 該供職을 因하야 補佐員을 使用
함이 必要한 境遇에는 該員이 該補佐員을 自
擇함을 許할 事
第七條 該醫師 富彦士가 私人的 疾病을 診察하야
該員의 供職에 防碍함이 有함을 不許하되 如此
한 境遇가 有하야 該員이 職務를 慢忽히 하면
合同期滿前이라도 大韓 宮內府大臣이 外部大臣
의게 知照하면 外部大臣이 德國公使의게 轉照
하야 該員을 罷雇할 거이니 此項境遇에는 該員
의 俸給은 罷雇日까지 撥給할 事
第八條 該合同이 期滿하는 時에 該員이 服勤함을
爲하야 二個月 俸給을 領收하되 若合同을 更續
하는 境遇에는 此額을 不得領收할 事
第九條 該合同期限 三年 內에 若該員이 身病이
有하야 供職치 못하면 二個月은 該員이 月俸
全額을 領收하고 若該員이 二個月 後에도 未得
痊可하면 該員이 請願免遞할 것시니 此項境遇
에는 該員이 合同이 期滿함과 갓치 二個月 俸
給을 領收할 事
第十條 該合同의 改定 或 添人함이 必要한 時에
는 宮內府大臣과 惠國公使가 此項을 商議酌定
할 事
第十一條 該合同은 韓德文 各四件으로 繕修하야
兩本の 辭意가 一切 相同케 하되 若該譯文에 差
錯이 有한 時에는 德文 原本을 考准하야 質定
하며 該合同에 大韓 宮內府大臣과 該醫師가 互
相署名捺印하며 此大韓 外部大臣과 德國公使가

互相捺印할 事
光武 六年 五月 三日
議政府贊政宮內府大臣臨時署理 議政府贊政 尹定求
Dr Richard Wunsch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 外部協辦 崔榮夏

이상의 계약 내용 중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첫째 계약 기간은 1901년 11월 1일로 소급하
여 기점을 삼고 3년으로 한다 둘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셋째
분쉬가 필요로 하는 고용인 약값 주택비 등
을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넷째 월봉은 연차
에 따라 600원 650원 700원으로 점차 늘려간
다 ¹⁶⁾ 다섯째 일반인을 진찰하여 공직에 소홀
할 시에는 바로 해고할 수 있다 여섯째 한어
독어 계약서에 차이가 있을 때는 독어 계약서
를 준거한다 등이었다 활동에 필요한 편의와
기간을 한국 정부가 철저히 보장하는 대신 한
국정부가 요구하는 시의 궁중의로서의 활동
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것이었다 이상의 고용
계약서에서 주목되는 것은 분쉬에 대한 대우
이었다 분쉬가 받는 월봉 800원은 다른 외국
인 고문과 비교해 볼 때 파격적인 것이었다
1898년도 외국인 고빙인들의 봉급현황을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총세무사 브라운이 900원이었
고 나머지는 500원 이하이었다 ¹⁷⁾ 총무세사의
업무가 세관을 비롯한 국가재정 전반을 좌우
하는 것이었음을 생각할 때 분쉬의 계약은 놀
라운 것이었다 분쉬의 계약이 늦어지고 소홀
히 다루어졌던 것과 상반된 파격적 계약은 곧
분쉬고용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
이었다 시의로서의 분쉬는 다급한 존재가 아

16) 분쉬의 보수와 관련해서 『Korea Review』(1 : 503 1901)와 『황성신문』(1901년 11월 7일자)은 각기 600원과 700원으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계약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월봉이 연차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7) 김현숙 : 한국 근대 서양인 고문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38쪽



사진 6 동묘 부근에 있던 한성 종두사 정문 (한국 베링거인겔하임 제공)

사진 7 한성 종두사 소장 박진성 (가운데 안경 쓴 이) (한국 베링거인겔하임 제공)

니었지만 그 고용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적지 않았던 것이다. 어찌하였든 분쉬가 맺은 계약은 분쉬의 공식적 지위를 보장함과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분쉬는 한국 도착 이후 시의로서 뿐만 아니라 공의 개업의 위생정책 조안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2) 시의로서의 활동

분쉬는 조선에 도착해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황제를 알현할 수 있었고 1902년 11월 처음으로 황제를 진찰하였다. 명색이 국왕의 주치의였지만 의사로서는 그다지 신임을 받지 못한 것이었다. 따라서 분쉬의 궁중생활은 대단히 파분할 수밖에 없었다. 1902년 5월의 편지에 의하면 궁중에서 별 다른 일이 없지만 상황 판단 위해 날마다 입궐했고 몇몇 환관이 가끔 사소한 흉터를 수술로 없앨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고작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시의라는 신분은 그 신분자체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었다. 분쉬는 이를 십분 활용하여 궁내 조그만 사무실로 있던 자신의 병원을 확장하려 노력하였다. 1902년 3월 분쉬의 기록에 의하면 병원 확장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조선 정부의 관리를 만났으며 이때 병상이 90-100개되는 병원을 제안하였다. 분쉬의 노력은 부분적으로 성공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고종이 운영비로 매달 300원을 지원한다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하였다. 결국 분쉬가 병원의 위치 때문에 주저하는 사이에 탁지부가 재정문제로 이를 거부하여 계획이 취소되고 말았지만 병원확장안이 검토될 수 있었던 것은 분쉬의 영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¹⁸⁾

한편 분쉬는 궁중 의사로서의 활동이 소극적이었던데 비해 국가 공의로서는 활발히 활동하였다. 분쉬는 1902년 8월에 육군병원의 전신인 육군위생원의 고문의사로 위촉되었는데 1902년 여름에 콜레라가 발생하자 서울에 주재하는 여러 나라의 의사들과 함께 의료협의회 구성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방역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발한 방역 활동을 벌였다. 그리

18) 리하르트 분쉬 지음 김중대 옮김 : 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쉬 학교재 1999 171-179쪽 참조

고 이때 분쉬는 다음과 같은 제안서를 내부대신에게 보내어 위생 정책의 정비를 주장하였다.¹⁹⁾

중국 항구 도시에 콜레라가 번지고 있다는 소식을 최근에 접했습니다만 사람의 분비물을 적절히 처리하는 일은 서울을 위해서도 새롭고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內部)대신께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궁에서 병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필요한 예방조치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셔야 합니다

감염은 주로 철저히 못한 화장실 시설 때문에 생깁니다 변기를 제때 비우지 않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변기 자체에도 결함이 있습니다 변기 속에 있는 내용물이 대부분 땅속에 스며들어 온갖 병원체에 영양을 계속 공급하고 악취를 내뿜는 데다 가까이 있는 우물까지 오염시킬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소변이 흘러나가는 하수구에 뚜껑을 닫지 않아 온갖 쓰레기가 거기에 쌓이고 있더군요 아주 더운 계절에는 곳에 따라 바짝 말라 있기도 합니다 병균이 우글거리는 진창이 먼지가 되어 공중으로 날아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호흡기관과 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깁니다 땅이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이 하수구에 파리와 모기가 번식하고 파손된 하수도에는 시궁쥐가 서식하여 흑사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개선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의 모든 오물을 처리하는 일정한 용기가 새지 않는지 점검하고 파손되었을 경우는 적절한 것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2 용기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해야 하며 적어도 매주 2회 일정한 시간에 걷어가서 도성 밖 한 곳에 비워 꼭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제대로 수거하려면 예비 용기가 있어

야 합니다

3 우선 청소는 기구로 해야 하며 용기가 놓여 있던 곳이 불결하면 석회수(물에 20%의 석회를 탄 용액)로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4 배수로와 하수구를 적어도 매주 2회 청소하고 석회수로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5 군인을 포함한 궁내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볼일을 화장실에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궁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위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황실과 궁내 거주자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긴급 위생 조치를 시행하시려면 시행 감독을 궁내 경호대에 맡기시는 게 제일 좋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기술적인 개별 사항을 언제든지 알려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하수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잘 봐야 합니다 궁과 도시 주변환경을 위해서도 이러한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건의서는 직접적 목적을 황실의 보호로 한 것이었지만 실제 내용은 국민위생의 향상을 도모한 것이었다 1880-1890년대 조선의 위생 상태는 제중원을 책임지고 있던 알렌이나 에비슨을 위시한 여러 선교사들의 글을 통해 어느 정도 엿 볼 수 있다²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서울의 배수 시설이었다 청계천은 오물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 파리와 모기가 들끓었다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물이 고여 시궁창을 이루었고 그곳으로 들어간 오물에서 세균이 번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인성 전염병에 무방비 상태였다 오밀조밀 모여 있는 작은 방의 공기나 목욕을 하지 않는 습관 등도 질병에 중요한 원인이었다 아직은 서양 의학

19) 분쉬의 위생 문제 건의안에 대해서는 「리하르트 분쉬 지음 김중대 옮김 : 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쉬 학고재 1999 70-75쪽」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각주는 생략하였다

20) 박형우 여인석 :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 연세의사학 3 : 3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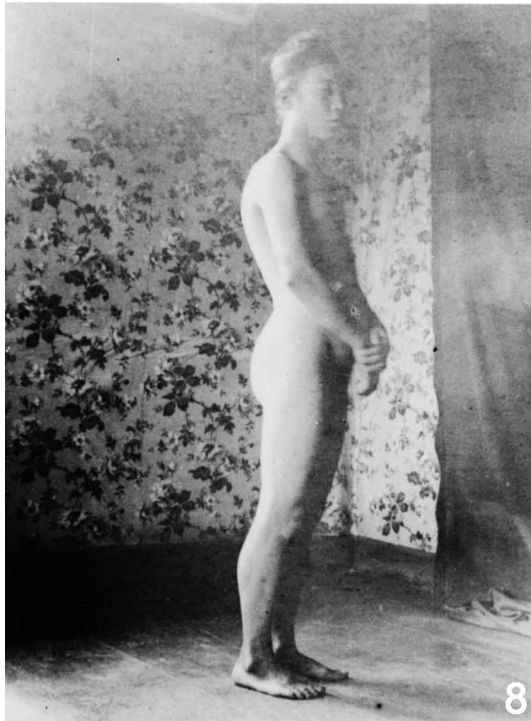


그림 8 분쉬가 강원도 동고개에서 인류학 조사를 하면서 찍은 한국인 노동자 (한국 베링거인겔 하임 제공)

적 측면에서 위생이라는 개념이 보급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환자의 사망률이 높았고 천연두와 결핵으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사망하였다 또 출생률이 높았지만 사망률 또한 높았으며 특히 유아의 사망률이 높았다 분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반 국민의 건강 관리와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분쉬는 위생정책을 구체화하여 의료청 신설 전염병 보고 제도의 확립 청소와 오물 수거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1 의료청 신설과 조직

우매한 한국 관리 한 사람 때문에 폐지되지 않도록 조직할 것

이와 관련하여 병원을 짓고 전염병이 만연하는 동안 의사를 특별히 대우해 줄 것
병원으로 사용할 건물이 없다면 천막을 쳐서 사용하되 군대가 경비하게 할 것

2 통신제도의 도입과 조직

경찰서로 하여금 공사관에 보고하게 할 것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을 중앙관서의 시내 지도에 표시하여 전염병이 만연한 구역을 폐쇄하고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3 도로청소와 오물수거제도의 조직

도로에 대소변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할 것
청소한 뒤 나온 하수구 오물을 길에 버리게 하지말고 수거해갈 것
현재로서 가장 바람직한 조치는 하수구 오물을 청소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

4 식료품 판매의 감독

과일가게 채소가게 술집을 감독해 썩은 식품이 없도록 하고 주류를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팔지 못하게 할 것

5 공동우물에 오물이 스며들어가는지 검사할 것 가능하다면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

콜레라 백신과 기타사토로 예방할 것
이와 같은 예방접종은 a) 진정을 시키며 b)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고 c)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며 d)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6 석회를 싼값으로 정부에서 구매할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사 몇 개 하는 약을 판매할 것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 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할 점입니다 사소한 일은 의료청에 위임하고 공사관들이 적절히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송금된 돈은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고 전염병이 지나가고 나면 신문 등에 공개적으로 회계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이 시기에 제기되고 있던 위생 개선 정책과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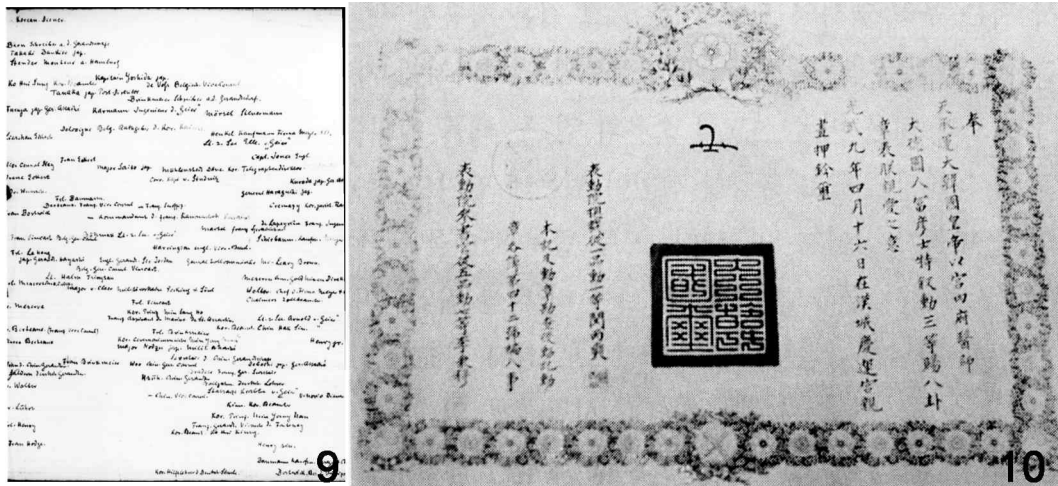


사진 9 분쉬의 친필(한국 베링거인젤하임 제공)

사진 10 분쉬가 받은 훈서장(『리하르트 분쉬 지음 김종대 옮김 : 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쉬 학교재 서울 1999 36페이지』에서 인용)

아니었지만 훨씬 구체적인 것이었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 역시 위생개선을 강조하였지만 당위적 수준에 그쳤을 뿐 통신제도 도입이나 싼값의 석회공매 같은 구체적 정책수단을 제시하지는 못했던 것이다.²¹⁾ 그런 점에서 분쉬는 막연히 위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뛰어 넘어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까지 심각하게 고민한 것이었다.

3) 개업의로서의 활동²²⁾

분쉬는 집에 진찰실을 열었는데 광고도 하지 않고 간판도 달지 않았지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 점차 환자들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잘 오지 않던 조선인 환자도 점차 늘었다. 분쉬가 보았을 때 조선의 의료 수가는 너무 낮

았다. 더구나 환자들은 진료 받는 것이 마치 자기들이 자선 사업을 베풀고 있는 것 같은 태도로 나왔고 진료비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약 한 병쯤 선물로 받는 것은 예사로 알고 있었다. 어떤 경우는 돈 대신 물건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흔했는데 어떤 외과 환자는 치료비 조로 닭 열 마리와 달걀 100개를 주었고 해산을 도와주고는 대가로 참외 한 개를 받은 적기도 하였다. 1902년 3월 수술실과 진찰실을 꾸미고 의학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독일어 학원에 다니는 2명의 젊은이를 수술 보조원으로 채용하였다. 그가 시행한 수술은 눈수술, 손가락절단술, 코수술, 흉골절제술, 복부수술, 방광수술, 방광절루수술, 위절개수술 등이었다. 의사로서 그의 실력이 어떠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의학 강국 독일의 의사로서

21)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1997, 231-239쪽 참조.

22) 개업의로서의 활동은 리하르트 분쉬 지음 김종대 옮김 : 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쉬 학교재, 1999 을 주로 참고하였다.

튼튼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는 당시 외과계의 거장 헬페리히 교수의 조수로 수련을 받았고 1904년 8월 도쿄의 일본 적십자사 총재 하시모토(橋本綱常) 남작이 분쉬가 갖고 있던 헬페리히 환부 절제톱을 자기 것과 바꾸어 가기도 했다. 한편 선교의사 커틀러(Cuttler)와 에비슨(Oliver R. Avison)의 요청으로 윤치호(尹致昊) 부인의 수술을 집도했던 사실이나 다른 선교 의사의 외과술에 대한 평가 등으로 미루어 당시 조선에 체류하던 여러 의사 중에서 가장 수술 솜씨가 뛰어났던 것으로 평할 수 있다. 분쉬는 이런 실력 때문에 한국인 뿐만이 아닌 서울에 주재하던 외국인들도 진료하였다. 당시 서울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및 러시아 의사가 있었고 분쉬는 벨기에와 프랑스 공사관의 공의 역할을 하였다. 또 제중원 에비슨과의 교분으로 1902년 3월에는 제중원에서 환자를 보았으며 4월에는 에비슨이 분쉬에게 환자 몇몇을 보내기도 하였다. 물론 영국인 간호사로부터 왜 영국인이 독일인 의사 밑에서 일하느냐란 말을 들으며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거절당하기도 했지만 이런 일을 빼면 분쉬는 독일의 정통 의사로 인정을 받았고 많은 유럽인들이 분쉬에게 치료를 받았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난 중에도 분쉬는 작은 진료소와 마구간을 갖춘 특수한 집 한 채 구입하여 조선인을 상대로 외래 진료를 하였으며 러일전쟁이 터지자 외국 통신원과 군인들까지 진료하였다.

3 분쉬의 귀국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기울어짐에 따라 분쉬는 더 이상 한국에 머물기 어렵게 되었다. 한국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히 확보한 일본이 열강과 연결된 외국인 의사가 고종의 곁에 있는 것을 달가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는 분쉬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1904년 8월 13일자 편지에서 자신의 처지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태가 일본군에게 유리해지고 러시아군이 계속 창피스러운 꼴을 당하면 한국 정부에 고용된 외국인들의 주가는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궁정에서 제 위치가 정치적으로 중요시되기 때문에(실제로는 거의 중요하지 않지만) 사태가 그렇게 전개될 경우 우리 모두 특히 저를 필두로 이 곳을 떠나야 합니다.” 결국 분쉬의 예상대로 일본군의 승리가 확정되자 재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1905년 4월 9일 분쉬는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²³⁾ 분쉬는 해약금으로 6,800마르크를 받았으며 조선 정부는 그 동안 시의로서 조선에 대한 기여를 높게 평가하여 빨간 천 가장자리에 열은 청색 물을 들인 밴드에 매단 3등 공훈 훈장을 수여하였다.²⁴⁾

분쉬는 1905년 4월 23일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가 독일 영사관 공의 자리나 벨츠 교수 후임 자리 등을 기다리며 2년 가까이 그곳에서 머물렀지만 여의치 않자 유럽으로 돌아갔다. 1908년 독일의 조차지였던 중국 교주(膠

23) 공식적인 분쉬의 해임 이유는 본인의 해임 요구이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분쉬가 더 이상 시의로 활동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대해 분쉬도 착잡하다고 적고 있다. 宮內 雇傭 獨人 醫師의 解任事 1905년 4월 18일 『德案』 규장각 18044[『舊韓國外交文書(德案 2)』 16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6 596쪽 문서번호 2865]; 리하르트 분쉬 지음 김종대 옮김: 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쉬 학교재 1999 150쪽

24) 이와 관련하여 「리하르트 분쉬 지음 김종대 옮김: 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쉬 학교재 1999 36쪽에 소개된 시의 임명장 사진은 이 훈서장을 잘못 기록한 것이다. 사진에 보이는 ‘大德國人 富彦士 特叙勳三

州)의 청도(靑島)로 가서 활동하다가 1911년 3월 13일 장티프스에 걸려 41세의 나이로 이국에서 생을 마감했다

결 론

분쉬(Richard Wunsch)는 대한제국 성립기에 내한하여 보호국화 직전인 1905년까지 고종의 시의로 활동한 독일의사이자 주로 미국과 일본의 영향이 컸던 한국 근대의학사에 있어서 독일인인 그가 내한하여 활동하게 된 데에는 격변하고 있던 한말의 역사적 상황이 배경이 되었다. 러시아, 독일, 미국 등 열강의 인물들 정부에 끌어들여 일본의 독주를 견제하고 자주국의 지위를 유지하려했던 대한제국정부는 독일의사인 분쉬를 시의로 고빙함으로서 정치적 균형을 얻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고종은 분쉬를 의사로서는 적극적으로 대하지 않았으며 분쉬 역시 국왕 주치의로서의 활동보다는 그 외의 부분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분쉬가 적극적으로 활동한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의로서의 활동과 개업의로서의 활동이다. 분쉬는 공의로서 궁중의 내관 관리들에 대한 진료를 하였고 위생방역 부분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02년 여름 콜레라가 대대적으로 유행하자 방역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역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가 제시한 방역대책은 대체적으로는 대한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정책과 입장을 같이하는 것이었지만 보다 구체적인 고 실제적인 대책을 제시한 것이었다. 또 분쉬

는 개업의로서도 활발히 활동하였다. 분쉬의 시의 고빙계약서는 공의활동에 충실할 것을 규정하였지만 분쉬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진료활동을 하였다. 러일전쟁 중에는 전쟁부상병을 치료하기도 하였고 뛰어난 수술능력으로 다른 외국인 의사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분쉬는 의사로서 뿐만 의학교육자로서의 활동을 구상하기도 하였는데 의학교 설립 계획이 그것이다.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독일의학을 의욕적으로 전파하려고 한 것이었다.

분쉬의 내한은 정치적 배경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그의 내한활동 역시 정치정세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러일전쟁 승리로 한국에서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됨에 따라 그는 더 이상 한국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졌다. 그가 국왕의 주치의로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의 완전한 지배권행사를 목표로 하고 있던 일본측의 의도에 벗어나기 때문이었다. 결국 분쉬는 1905년 한국을 떠나게 되었으며 1911년 중국 청도에서 사망하였다.

분쉬는 공식적으로 시의 고빙계약을 맺었지만 시의로서 크게 활동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선진의학이었던 독일의학의 전파와 위생방역근대화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그의 초기 離韓은 일제침략기 다양한 국가와 경로를 통해 진행될 수 없었던 한국근대의학 수용의 어려움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색인어 : 분쉬, 독일의사, 시의

等 賜八卦章'의 내용은 시의 임명이 아닌 훈서의 내용이며 분쉬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또 한국측의 분쉬 훈서에 관한 기록도 여기에 일치하고 있다. 韓廷僱傭 獨人 醫師에 對한 勳記의 轉送 要請 1905년 7월 19일 『德 原案』 규장각 18045[『舊韓國外交文書(德案 2)』 16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6 609-610쪽 문서번호 3032]

= ABSTRACT =

Richard Wunsch

Hyung-Woo Park* · Tae-Hoon Lee**

Richard Wunsch war ein deutscher Arzt der zur Zeit der Gründung des koreanischen Kaiserreichs nach Korea kam und bis 1905 als Königsarzt tätig war. Der Grund seiner Einreise nach Korea hatte einen geschichtlichen Hintergrund. Damals stand Korea unter dem großen Einfluß von America und Japan. Korea versuchte durch die Einbeziehung von Rußland und Deutschland die japanische Macht zurückzuhalten und die Einreise von Wunsch trug dazu das japanische politische Übergeschwicht abzunehmen. Da seine Einreise eher ein politischer Grund war, hat der König ihn als Königsarzt nicht voll akzeptiert. So hat Wunsch nicht nur im königlichen Palast als Arzt gearbeitet, sondern auch im privaten Bereich ärztlich tätig gewesen. Zusätzlich hat er sich für die Seuchenbekämpfung eingesetzt. Insbesondere im Jahr 1902, als Cholera ausbrach, hat er Maßnahmen gegen die ansteckende Krankheiten getroffen, die viel konkreter waren als die von Korea. Obwohl Richard Wunsch vertragsmäßig als Königsarzt seine Aufgaben gut erfüllen sollte, hat er auch persönlich viele Patienten ärztlich behandelt. So hat er zum Beispiel während des Krieges zwischen Rußland und Japan viele verletzte Soldaten ärztlich behandelt und seine operativen Techniken den anderen Ärzten beigebracht. Wunsch interessierte sich auch für die medizinische Ausbildung. So versuchte er eine medizinische Schule zu gründen, was leider aufgrund der schlechten finanziellen Lage nicht erfüllt werden konnte. Da sein Besuch nach Korea mehr ein politischer Grund war, wurde seine Tätigkeit politisch überwacht.

Nachdem Japan im Krieg Rußland besiegte, ergrieff auch die politische Macht in Korea. Nach dieser Machtübernahme ließ Japan nicht mehr zu, daß Wunsch als Königsarzt weiterhin tätig ist. So mußte Wunsch 1905 Korea verlassen und starb 1911 in China.

Key Words : Richard Wunsch, deutscher Arzt, Königsarzt

* Department of Anatomy & Dong-Eun Medical Museum, Yonsei University Medical College

**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Yonsei University Medical College